

Shakespeare의 철자 현대화 문제

李 京 植

(英文科 教授)

Shakespeare edition에는 old-spelling edition과 modern-spelling edition이 있다. 18세기로 부터 지금까지 나온 Shakespeare edition의 거의 전부는 후자이다.

본 논문의 주제는 modern-spelling Shakespeare edition이다. 이것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부분적으로 현대화된 본문(partially modernized text)이요, 또 하나는 전면적으로 현대화된 본문(fully modernized text 혹은 complete and absolute modern-spelling edition)이다.

지금까지 나온 modern-spelling Shakespeare edition은 모두가 부분적으로 현대화된 본문을 갖고 있는 modern critical edition 혹은 semi-popular edition이다. 전면적으로 현대화된 popular edition은 아직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권으로 된 Clark와 Wright의 Cambridge Edition(1863~66)¹⁾을 비롯하여 Furness의 New Variorum(1871~)²⁾ Craig와 Case

* 본 논문은 1984년도 문교부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1) 이것은 보통 'Cambridge' Shakespeare 혹은 J. Dover Wilson의 The New(Cambridge) Shakespeare에 대하여 The Old Shakespeare로 불리우는데 제 1권은 W.G. Clark와 J. Glover의 편집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8권은 Clark와 W.A. Wright가 편집한 것이다. 이것의 제 2판이 1867년에 나왔고, 제 3판은 Wright의 개정으로 1891~3년에 나왔다. 이 edition은 그 후 크게 발전된 서지학적 및 문헌학적 연구에 의한 오늘날의 편집수준에 비추어 볼 때 본문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 많지만 오랫동안 standard text가 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이것을 한권으로 낸 Clark와 Wright의 소위 The Globe Shakespeare(1864)는 line numbering을 위한 standard edition이 되어왔다. Alexander의 edition(1951)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자들이 Shakespeare를 인용할 때 이 edition을 사용했던 사실은 이것이 지녔던 권위를 짐작케 한다.
- 2) 미국의 학자 Horace Howard Furness는 19세기초에 나온 First Variorum(21권, 1803), Second Variorum(21권, 1813), Third Variorum(21권, 1821)을 개정한다는 의도를 갖고 'New Variorum' Shakespeare를 계획하였다. 첫 권인 *Romeo and Juliet*이 1871년에 나왔고 그가 사망한 1912년까지는 18권만이 나왔다. 이 일은 그의 아들 H.H. Furness Jr., J.Q. Adams, H.E. Rollins 등에 의해 차례로 승계되었으며, 1936년부터는 미국의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이 떠맡았다. 이렇듯 New Variorum은 대를 이어 벌인 역대의 사업이고 또 가장 광범위한 본문적, 비평적, 해석적 주를 수록한 가장 종합적인 Shakespeare edition이지만 나오기가 바쁘게 남아버리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hakespeare Association of America는 G.B. Evans에게 부탁하여 1936년에 나온 S.B. Hemingway 편집의 New Variorum *Henry IV, Part I*의 Supplement를 1956년에 *Shakespeare Quarterly* 여름호로 내었다. 이것은 성공이었고, 2 *Henry IV, Richard II, Julius Caesar*를 위한 Supplementary Bibliography들도 내었다. 그러나 New Variorum은 Furness 때보다 부진하여 Matthew Black가 편집한 1955년의 *Richard II* 이래 거의 빈사상태로 들어갔다.

최근에 James G. McManaway를 General Editor Emeritus로, Robert K. Turner를 general editor로 하여 이미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는 'New' New Variorum Edition을, 아직 한번도 나오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본래의 New Variorum edition을 활발히 진행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1890년의 *As You Like It*가 Richard Knowles의 편집으로 1977년에 나왔고, 1977년 현재 *Measure for Measure*는 인쇄중이고, 다른 22개 작품들이 준비과정에 있으며, 이중의 7개는 거

의 Arden Edition(1899~1924),³⁾ Cross 와 Brooke 의 Yale Edition(1917~1927),⁴⁾ Wilson 의 New Shakespeare(1921~1866),⁵⁾ Harrison 의 Penguin Edition,⁶⁾ New Arden Shakespeare(1951~), New Yale Shakespeare (1954~), T.J.B. Spencer 를 general editor 로, Stanley Wells를 associate editor 로 하고 1960년대 후반에 출발한 New Penguin Shakespeare 등의 낱지의 multi-volume(Cambridge Shakespeare 를 제외하면 one volume per play) Shakespeare edition 들과 Clark 와 Wright 의 Globe Edition (1864), Craig 의 Oxford Shakespeare (1904), G.L. Kittredge 의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1936), P. Alexander (1951), C.J. Sisson(1954), A. Harbage (Pelican, 1969), H. Craig 과 D. Bevington (1973), G.B. Evans (The Riverside, 1974) 등의 낱지의 one-volume (single-volume) Shakespeare edition 들을 거치면서 축적된 semi-popular edition 혹은 철자가 부분적으로 현대화된 edition 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철자가 완전히 현대화된 소위 complete and absolute modern-spelling edition 의 성공적인 탄생을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다.

최근에 비교적 전면적인 현대철자의 Shakespeare edition 을 위한 시도가 진행중이며, 그것의 모습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Oxford 대학 출판사가 1978년에 기획한 Oxford Edition 들인데, 이것의 지침서인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 with Three Studies in the Text of 'Henry V'* 가 Stanley Wells 와 Gary Taylor 에 의해서 집필되어 1979년에 출판되었다. 이 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철자를 현대화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의 완성단계에 있다. 그러나 *Pericles, The Taming of the Shrew, The Two Gentlemen of Verona, The Two Noble Kinsmen* 은 아직 New Variorum edition 을 갖고 있지 못하며, 1977년 현재 편집자 선정도 되어있지 못하다. 또 *Cymbeline, Hamlet, King John, Love's Labour's Lost, Much Ado About Nothing, Richard III, Sonnets, The Tempest* 의 New Variorum edition 들은 이제 대부분 남아서 'New' New Variorum 판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들 역시 편집자를 배정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

- 3) 'Arden' Shakespeare 는 W.J. Craig (1899~1906)와 R.H. Case (1909~1944)를 general editor 로하여 37권이 나왔다. Una Ellis-Fermor 를 general editor (1944~1958)로 하여 The New Arden Shakespeare 를 계획하여 195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1958년에 사망하자 이 일은 그 후 오늘날까지 H.F. Brooks와 H. Jenkins 를 general editor 로 하여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Brian Morris 도 general editor 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80년에는 Brian Gibbons 가 편집한 *Romeo and Juliet* 과 Harold F. Brooks 가 편집한 *A Midsummer Night's Dream* 이 나왔으며, 1982년에는 난산이던 대망의 *Hamlet* 가 Harold Jenkins 의 편집으로 나오므로써 The New Arden Shakespeare 는 거의 완결되어 *The Sonnets* 만을 남기게 되었다.
- 4) 이 'Yale' Shakespeare 는 W.L. Cross 와 Tucker Brooke 를 general editor 들로 갖고 1917~1927 사이에 40권으로 나왔다.
- 5) 이것은 1921년의 *The Tempest* 로 시작하여 1966년의 *The Poems* 로 끝난 40권의 Shakespeare Edition 이다. 본문은 J. Dover Wilson 이 전담하였으며, 20세기의 서지학적, 본문학적 연구결과를 광범위하게 수렴한 것이 특징이다. 첫권으로 나온 *The Tempest* 에는 전권을 위한 'Textual Introduction' 이 앞부분에 붙어 있다.
- 6) G.B. Harrison 이 직접 편집한 한 권에 한 작품씩의 'Penguin' Shakespeare 는 Folio text 를 인쇄원고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것들을 한데 모은 한 권으로 된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1952년에 내었다.

I

modernizing editor는 old-spelling edition의 editor보다 훨씬 많은 편집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철자현대화가 용이한 부분도 많다. 당시 거의 변함없이 단어의 처음과 중간에 사용된——단어의 끝자리에 쓰인 적은 결코 없었다——긴 ‘I’를 모두 짧은 ‘s’로 고친다든지, ‘vniuersity’에서 보듯 단어의 첫자리에 보통 사용된 ‘v’를 ‘u’로, 단어의 중간에서 변함없이 사용된 ‘u’를 ‘v’로 고친다든지, ‘Ionsen’에서 보듯이 ‘J’ 대신에 쓰인 ‘I’를 모두 ‘J’로 고치는 따위는 아주 쉬운 철자현대화 작업의 예들이다.

또 *lanthorn(e)*, *murther*, *parfit*, *vild* 등은 16, 17세기에는 일상 쓰는 철자들이었고 또 일상 하던 발음들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이 형들은 그들의 alternative form들이었고 지금은 표준형들이 된 *lantern*, *murder*, *perfect*, *vile* 등과 조금도 구별없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것들을 현대화할 때 손실되는 것은 운(rhyme)이 관련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modernizer 중에는 이 form들은 그들의 alternative form들과는 달리 특유의 발음과 combination을 갖고 있으며, 각별한 맥락에서만 일어난다고 보고 이것들이 scribal 내지 compositorial interference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들의 edition에서 old form을 존속시킨 경우들이 있다. W.W. Greg가 *banket* 대신에 *banquet* 를, *faddom* 대신에 *fathom* 을, *lanthorn* 대신에 *lantern* 을, *murther* 대신에 *murder* 를, *mushrump* 대신에 *mushroom* 을, *orphant* 대신에 *orphan* 을, *parfit* 대신에 *perfect* 를, *perculace* 대신에 *portcullis* 를, *tottered* 대신에 *tattered* 를, *vild* 대신에 *vile* 을, *wrack* 대신에 *wreck* 를 인쇄하는 것은 ‘sheer perversion’이라고 말했을 때⁷⁾ 그는 확실히 이상의 단어들의 old form 혹은 old spelling을 현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독자를 위한 modern-spelling edition을 목적할 때는 metre, rhyme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발음을 이유로 old form을 존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old form들이 authorial이 아니라 scribal이나 compositorial일 가능성이 있는 터에 partial Elizabethan pronunciation을 복구하는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F. Bowers도 learned text 곧 old-spelling critical edition이 아닌 popular text에서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따라서 의미상의 구분이 없었던, *band-bond*, *tatter-totter* 등과 같은 dialectal variant들을 후회없이 현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 행 간격으로 나타나는 Marcellus의 *Illo*와 Hamlet의 *Hillo*가 Shakespeare의 의도에 의한 것인 양 존속시켜서 이들의 발음을 서로 다르게 해야 한다는 함축을 현대 독자에게 주는 것은, 특히 *Illo*가 Q1에서 Q2로 전수되고, 이것을 F가 되풀이하여 인쇄했음이 거의 명백한 마당에

7) W.W. Greg, *The Editorial Problem in Shakespea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4; 1st ed. 1942), p. 11.

'simple folly'라고 말하면서 이 범주의 단어들을 현대화함으로써 modern-spelling edition이 겪는 손실은 전무함을 시사했다. full modernization이 Elizabethan English에 가져올 가장 큰 손실은 그것이 *sally* (for *sully*)와 같은 단순한 dialectal form뿐만 아니라 'really distinctive obsolete word'를 없애 버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partial modernization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어원적인 근거를 한결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Bowers는 말한다.⁸⁾

New Arden edition과 New Yale edition은 partially modernized text들로서 특정한 단어들의 경우 그들의 original form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New Arden의 편집자들은 각기 자신들에게 모양이 독특하게 보인다는 formal ground 하에서 일부 단어들의 original spelling을 존속시키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New Yale의 편집자들은 일부 단어가 발음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assumed pronunciation ground 하에 그것들의 original form을 존속시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New Arden과 New Yale은 이렇게 각기 다른 근거하에, 예를 들면, 'murther'를 존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murther'와 'murder'가 동일한 original text 속에서도 발견되므로 이 두 형태를 구별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all older forms that are more than are variant spellings'를 보존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New Arden *Lear*에서 편집자인 K. Muir는 자음변형들인 *murther*, *vild*를 존속시키고 있으나 같은 자음변형들인 *abominable* (abominable), *clime* (climb), *limmes* (limbs)와 모음변형들인 *shew* (show), *bloud* (blood)를 존속시키지 않고 현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산문에서도 원문의 ———'d와 ———ed들을 재생했다. 간단히 말하면 Muir는 어떤 언어학적인 원칙에 의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임의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식자공들의 철자들을 보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⁹⁾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really different phonetic forms'와 'mere arbitrary variations of spelling'을 구분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정보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는 아직도 *dance*, *daunce*가 발음상으로 어떤 차이나 fluctuation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¹⁰⁾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부분적 현대화는 일관성을 결하게 된다. 일부 학파가 'complete and absolute modernization'이 그런대로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인 것이다.

Jürgen Schäfer는 고유명사만이라도 Elizabethan flavour를 간직하도록 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나 clarity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일단 완전한 현대화의 원칙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만이 역설적이게도 새 문맥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말했다.¹¹⁾

8) F. Bowers, *Principle and Practice in the Editing of Early Dramatic Texts* (C.U.P., 1959), pp. 134-35.

9) F. Bowers, *Textual and Literary Criticism* (C.U.P., 1966), pp. 175-76.

10) Greg, p. li.

11) Jürgen Schäfer, 'The Orthography of Proper Names in Modern-Spelling Editions of Shakespeare', *Studies in Bibliography* XXIII (1970), p. 16.

셰익스피어 시대는 'hear'가 'hear' 혹은 'heare'와 'here'로, 'of'가 'of'와 'off'로, 'the'가 'the'와 'thee'로,¹²⁾ 'to'가 'to'와 'too'로, 'then'이 'then'과 'than'으로, 'whose'가 'whose'와 'who's'로, 'I'가 'I'와 'Ay'로, 'lose'가 'lose'와 'loose'로, 'curtsy'가 'curtsy'와 'courtesy'로 철자되었다. 그것은 주로는 철자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왕왕 지면(text-space)과 활자부족(type-shortage)이 원인이었으며 행의 간격조정(line justification) 때문에 짧은 혹은 긴 철자변형을 택한 것도 그 원인이었다. 이상의 단어들은 현대의 표준 철자에 따르면 두 가지의 별개의 뜻을 나타내는 두 변형철자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외관상으로는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문맥에 의해서 어느 쪽인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의미에 따라서 철자를 현대화 하면 된다. 이 단어들은 작가의 것(authorial)이라기 보다는 필생의 것(scribal)이나 식자공의 것(compositorial)이어서 modern unequivocal counterpart로 완전히 현대화되어도 별 손실이 없을 것이다.

J.R. Brown은 식자공들이 그들의 기호 때문에 혹은 행의 간격조정이나 활자부족 등의 해결방편으로 원고의 단어들을 마음대로 바꾸었음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하였다.

'lanthorn might be substituted for lantern, Bermoothes for Bermoothas, and so forth, in accordance with a workman's predilections or the exigencies of justification or type-shortage...'¹³⁾

'...early compositors altered the spelling of their copy.... its punctu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predilections, the availability of type, and the exigencies of justification.'¹⁴⁾

한편 Arthur Brown은 old form들이 authorial이 아니라 compositorial이라는 주장을 그와 같이 여러 차례 되풀이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J.R. Brown처럼 중요시 되어야 할 요소는 못된다고 했다.¹⁵⁾ 이로부터 10년 후에 Jürgen Schäfer는 'ordinary' words의 경우는 철자가 식자공의 소관사항('compositorial prerogative')이며, 고 유명사들도 식자공의 철자선호도에 크게 달려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J.R. Brown의 의견과 같은 말을 했다.¹⁶⁾ 또 이로부터 10여년 후에는 Stanley Wells가 뒤에서 취급될 그의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 (1979)에서 셰익스피어의 early text들의 철자가 authorial이 기보다는 compositorial이라는 의견을 누누이 되풀이 강조하게 된다.

12) 'thee'가 정관사 'the'를 나타낼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반대로 2인칭대명사인 'thee'가 'the'로 철자된 경우는 흔했다. (R.B. McKerrow, *Prolegomena for the Oxford Shakespeare: A Study in Editorial Method*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39), p. 29.)

13) J.R. Brown, 'The Rationale of Old-Spelling Editions of the Plays of Shakespeare and his Contemporaries', *Studies in Bibliography* XIII (1960), p. 59.

14) *Ibid.*, p. 64.

15) Arthur Brown, 'The Rationale of Old-Spelling Editions of the Plays of Shakespeare and his Contemporaries: A Rejoinder', *Studies in Bibliography* XIII (1960), p. 74.

16) Jürgen Schäfer, 'The Orthography of Proper Names in Modern-Spelling Editions of Shakespeare', *Studies in Bibliography* XXIII (1970), pp. 8-9.

지금까지는 Shakespeare 철자의 old form 이 작가의 것이기보다는 식자공의 것이기 때문에 현대화가 용이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화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것은 자연 complete modern-spelling edition 의 탄생을 어렵게 만든다.

이 어려움들의 하나는, 예를 든다면, 'travail' 이 *travail* 과 *travel* 이란 두 modern form의 뜻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Machiuillian' 이 *Machiavellian* 이란 현대철자의 old form 인 동시에 *villain* 의 뜻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 original edition 의 ambiguity 가 단어의 형태나 의미상으로 명백하게 연결되지 않는 두 현대단어의 두개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 경우 편집자는 둘 중 어느 형태로 철자를 현대화해야 되는지 난감해진다. 왜냐하면 그 어느 형태로 현대화하든지 old form 의 단어가 지닌 의미의 일부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어려움의 해결책은, 다시 말하면 semi-popular edition 혹은 modern-spelling critical edition 에서는 old form 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original 의 모든 allusive ambiguities 를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대화하는 editor 의 이점이다. 완전히 현대화된 edition 을 내리는 editor 는 여러 가지 미묘하고 어려운 편집상의 결정들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본문적, 해석적 주석들을 많이 달아야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original printed text 는 물론 그 작가의 complete works 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완전히 현대화된 edition 을 만드는 editor 가 위의 경우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old form 이 갖는 뜻이 서로 다른 두 현대형 철자 중에서 문맥상 주된 뜻을 지닌 소위 *primary* modern spelling 을 본문에 인쇄하고 original spelling 의 부차적 의미 내지는 그것의 ambiguity 를 각주나 주석으로 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semi-popular edition 이 old form 을 존속시키는 경우는 'acceptable modern equivalent' 가 없을 때, 즉 의미상으로나 metrical value 상으로 modern equivalent 가 없을 때, original spelling 이 방언적인 요소나 고투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했을 때, 또는 rhyme 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이와 같은 예외들은 'complete and absolute' modern-spelling Shakespeare edition 의 출현을 지금까지 막아왔다.¹⁷⁾

s 로 끝나는 일부 명사도 철자현대화 작업에 어려움을 준다. apostrophe 의 사용은 17세기 말엽에 가서 비로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명사에 붙는 final 's' 가 복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단수의 소유격인지, 혹은 복수의 소유격인지, 아니면 축소형인지 문맥상으로도 모호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cats' 는 현대형의 *cats*, *cat's*, *cats'*, *cat is* 를 다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문맥에 의해서 그것이 이 중의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modernizing editor 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17) J.R. Brown, pp. 61-2.

If there bee any in this Affembly, any deere Friend of *Caefars*, to him I say, that *Brutus* loue to *Caefar*, was no leffe then his. (3막 2장의 Brutus의 대사에서)

여기서 ‘*Caefars*’는 현대의 Caesar’s와 같고, ‘*Brutus*’는 현대의 Brutus’에 해당함을 우리는 문맥에 의해서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을 현대화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bee’는 be로, ‘Affembly’는 assembly로, ‘deere’는 dear로, ‘Friend’는 friend로, ‘loue’는 love로, ‘leffe’는 less로, ‘then’은 than으로, 이태릭은 모두 명조체로 바꾸고, ‘I say’의 다음과 ‘was’ 전에 오는 comma를 없애버리면 다음과 같은 완전한 현대화를 얻게 된다.

It there be any in this assembly, any dear friend of Caesar’s, to him I say that Brutus’ love to Caesar was no less than his.

또 Antony의 연설중의 ‘Traitors armes’ (3.2. 187)는 문맥상 traitors’ arms임이 분명하여 역시 현대화에 어려움이 없다. ‘a mans life’와 ‘Caesars honour’의 경우는 문맥의 도움조차도 필요없이 각각 a man’s life와 Caesar’s honour로 현대화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the soldiers valour’는 the soldier’s valour인지, the soldiers’ valour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our Glories ouerthrow’가 our Glory’s overthrow인지 아니면 our Glories’ overthrow인지 문맥의 도움으로도 분간하기 힘들 것이다.

MND Q와 F의 ‘My fortunes euery way as fairly ranked’ (1.1. 101)에서 ‘fortunes’가 fortune의 복수형(따라서 다음에 ‘are’가 understood된)인지, fortune의 소유격인지, 아니면 fortune is의 축소형인지 문맥상으로도 판단하기 힘들다. Alexander와 Evans는 모두 그들의 one-volume Shakespeare edition에서 ‘fortunes’를 원형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역시 *MND*의 ‘I cry your worships mercy heartily. I beseech your worships name.’의 경우에는 Alexander(3.1. 165-66)와 Evans(3.1. 179-80)는 공히 앞의 ‘worships’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뒤의 ‘worships’는 worship’s로 현대화했다.

여기서 철자현대화 문제를 최초로 길게 다룬 Dover Wilson의 견해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New Cambridge의 *The Tempest*에 붙인 ‘Textual Introduction’에서 기이함 때문에 혹은 원문이 의미에 기여하고 scansion에 편안함을 주고 rhyme에 우아함을 주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a few Shakespearian forms’를 제외하고는 철자를 모두 현대화했으며, 어차피 F와 Q판들의 철자들이 혼히는 식자공들의 것이고 보통은 셰익스피어의 것이 아니므로 현대화로 읽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셰익스피어는 축소형들을 많이 사용했고, 이것들은 verse-scansion 상으로 중요하므로 명백한 오식들을 빼고는 전부 존속시켰다고 했으며, final —ed만은 현대영어 발음에서 d와 t 다음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syllabic이 아닌지 오래되므로 —d로 줄이지 않았고 —d는 모두 —ed로 했고, 다만

syllabic 일 때 stress 표시를 붙여 나타냈다고 했다.¹⁸⁾

II

구두점의 현대화도 역시 철자의 현대화와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을 준다. 즉 early compositor 들은 인쇄원고의 철자들을 변경하였듯이 그들의 기호(嗜好), 활자의 재고량, 행의 간격조정 등의 사정에 따라서 인쇄원고의 구두점을 많이 고친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본래의 구두점은 식자공 외에도, 필생(scrivener), 인쇄소의 editor와 corrector들에 의해서도 많이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두점 용법에는 애매한 데가 있다. 감탄부호 ‘!’가 의문부호 ‘?’로 종종 쓰였고, 의문부호는 가끔 생략되기도 했다. 따라서 원래의 구두점들을 현대화된 edition에서 재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Dover Wilson은 셰익스피어의 구두점 곧 Q와 F의 구두점이 문법적이고, 논리적인 현대의 구두점이 아니고 극적(dramatic)이고 수사학적인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배우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Percy Simpson의 연구(*Shakespearean Punctuation*, 1911)에 따라 셰익스피어의 구두점을 그의 *New Shakespeare*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전면 현대화를 피했다. 구두점에 대한 그의 입장은 셰익스피어의 구두점이 극적이고 문법적이지 아니며, 쉼표, 괄호, 대문자 등은 말하자면 속기로 기록된 무대지시로서 배우들에게 숨을 얼마나 길게 혹은 짧게 쉬고, 어느 대목을 강조해야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 속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¹⁹⁾

Wilson은 예의 *The Tempest*에 붙인 ‘A Note on Punctuation’에서 앞으로 그의 *New Shakespeare*에 전면 적용할 자신의 구두점 체계를 밝혔다. 그는 early text들의 구두점을 작가의 것으로 보았으며, 그것은 극적인 것으로서 pause, emphasis, intonation의 문제일 뿐 syntax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comma는 short pause, semicolon은 보다 긴 pause, colon은 이 보다 더 긴 pause, full-stop은 완전 중단을 뜻하며, 현대 독자가 기대하는 곳에 구두점이 없는 것은 rapid delivery를 해야 함을 뜻한다고 했다. 괄호(brackets)는 속도보다는 억양에 영향을 주며, 종종 목소리가 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 이것들은 hushed whisper, touch of anxiety, note of tenderness, surprise 혹은 awe 등의 보다 의미있는 어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pause 특히 semicolon, colon, full stop의 pause는 종종 sob, kiss 기타 보다 긴 ‘business’(=action on stage)에 의해서 채워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성격상 non-syntactical한 구두점을 모두 존속시킨다면 당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18) J. Dover Wilson (ed) *The New Shakespeare: The Tempest* (C.U.P., 1921), pp. xxxix-xl.

19) *Ibid.*, pp. xxxvii-xxxviii.

라면서 Wilson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체계를 마련했다.

full-stop—마침표가 대사 끝에 올 때는 그대로 둠. internal full-stop은 언제나 long pause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네개의 점으로 하였음. 따라서 New Shakespeare의 text에 들어있는 internal full-stops는 문법적인 이유로 도입한 비셰익스피어의 것이며, 흔히 comma를 그렇게 고친 것임.

colon—명백한 오식들을 제외하고는 원래대로, 혹은 세개의 점으로 하였음.

semicolon—colon과 comma와 구분하기 힘든 semicolon은 원형을 존속시켰다. 그러나 semicolon은 때로 dash로, 때로 colon의 경우처럼 세개의 점으로 바꾸어 놓았음.

comma—각별한 극적 의미를 지닌 듯한 것은 dash로, 때로는 단어나 구의 양쪽에 dash로 바꾸었음. 문법적인 이유로 많은 comma가 New Shakespeare에 도입 됨. 원래의 comma는 문법적인 이유로 생략하였으나 때로는 full-stop과 semicolon으로 대체되었음.

감탄부호—감탄부호 사용에 인색한 셰익스피어의 old text 들에는 의문부호가 감탄부호 역할을 종종 대신했는데 그것의 주된 이유는 감탄부호의 활자재고량 부족이었을 것으로 봄.

괄호—significant한 경우들은 존속시켰으나 단순한 괄호일 때는 괄호는 comma로 대체하였음. 또 어떤 때는 양쪽 dash와 감탄부호로 대체되었음. New Shakespeare는 단일 괄호 ()를 대사들의 서두에 subsidiary dialogue 혹은 일련의 asides를 main dialogue와 구별짓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하였음.

강조대문자들—셰익스피어는 보통 pause를 사용하여 강조를 나타내었으나 때로는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화함으로써 강조를 전달했음. F에는 이런 강조대문자가 많으나 그것은 compositorial로서 non-Shakespearian일 듯함. 그러나 그것이 authorial일 심증이 클 때는 그 단어를 spaced lettering으로 인쇄하였음.

인용부호—원문에서는 속담이나 격언조의 'sentences'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 행의 서두에 single inverted comma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double form으로 바꾸었고, 인용을 나타낼 때만 single inverted comma를 사용하였음. 인용부호로 표시된 무대지시들은 F 혹은 Q들에서 직접 취한 것임.

R.B. McKerrow는 구두점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었다. 그는 F에 인쇄된 구두점들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오늘날의 것보다는 덜 규칙적이지만 old spelling이 독자에게 주는 이상의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F의 구두점들이 modern text들의 보다 더 논리적인 구두점들 보다도 대사를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보수적인 McKerrow도 한가지 유형의 비규칙적인 구두점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한 clause가 semicolon, colon, full-stop와 같은 주된 stop에 의해서 다른 clause와 잘라져 있거나, 반대로 서로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두 clause가 comma로만 잘라져 있을 때

는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다음과 같은 예를 하나 보자.

And as we march, our strength will be augmented:

In euery Countie as we goe along,

Strike vp the Drumme, cry courage, and away. (F 3H6, 11. 2878-80 [5.3.22-4])

여기에서 의도된 의미는 분명히 Edward 왕의 병력('strength')이 행군해 갈 때 모든 주('Countie')에서 증가될 것이라는 것인데, 만약 이 colon 을 오늘날과 같은 용법으로 보면 행군해 가는 모든 주에서 북을 치고 용기를 내라는 말이 되어 엉뚱한 뜻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In euery...along' 은 문맥상 그 뒤보다는 그 앞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F의 colon 은 오늘날의 용법에 따른다면 오해를 낳게 된다. 따라서 'augmented' 다음의 colon 을 없애든지, comma 로 바꾸든지 하고 'along' 다음의 comma 는 semicolon 이나 full-stop 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적으로 이 대목의 구두점이 몇몇 modern-spelling edition 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And, as we march, our strength will be augmented

In every county as we go along.

Strike up the drum; cry 'Courage!' and away. (The Globe Ed 및 New Shakespeare)

(2) And as we march our strength will be augmented

In every county as we go along.

Strike up the drum; cry 'Courage!' and away. (Alexander)

(3) And as we march, our strength will be augmented

In every county as we go along.

Strike up the drum, cry "Courage!" and away. (The Riverside)

(1), (2), (3)이 공히 두 개의 중요한 구두점을 동일하게 고쳤다. 즉 'augmented' 다음의 colon 을 없애고, 'along' 다음의 comma 를 full-stop 으로 현대화했다.

구두점 현대화에는 철자 현대화와 다른 점이 있다. 오늘날 표준철자(standard spelling)는 있어도 표준구두점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편집상의 함축을 지닌다. 즉 original edition 을 인쇄심을 갖고 분석하여 그 구두점이 작가의 것이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편집자는 자신의 취미와 작가의 문체 및 예술적 의도에 대한 그의 지식에 따라 구두점을 현대화 하면 될 것이다. 만약 원본의 구두점이 authorial 이라는 강한 심증을 얻을 때는 편집자는 authorial element 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구두점 체계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좋다. 결국 철자의 경우는 원형을 그대로 재생하거나 현대화할 수 있으나 구두점의 경우는 이상과 같

20) McKerrow, p. 42.

은 사정 때문에 타협해결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²¹⁾

구두점의 일부로 간주되는 이태릭체, 대문자, 줄임말(elisions)도 타협해결책을 쓸 필요가 가끔 있으나 현대화하기에 그리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C, T, M, A 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유난히 첫자를 대문자로 한 경우가 많고, 작가 특유의 필체, 식자공의 버릇, 활자재 고랑에 의해서 별다른 의미없이 대문자로 시작된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편집자는 이것들을 현대용법에 따라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lision의 경우에도 metre와 관련없이 그것이 발생했을 때 혹은 그것이 metre에 방해가 될 때 편집자는 그것을 매우 자유롭게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complete modernizer에게는 Q와 F의 철자까지 모두 현대화하는 마당에 그것들의 구두점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현대 edition의 독자들이 본래의 구두점의 subtlety나 nicety를 십분 감상할 능력을 구비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III

셰익스피어의 사절판들, 이절판들, 18세기 판들, 19세기 판들, 20세기 판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Shakespeare edition의 현대화의 진전을 알 수 있다. 'old' 혹은 'early' text들이라고 일컫는 Q들과 F1(시간적으로 약간 뒤진)를 서로 비교해 보아도 현대화의 추세는 뚜렷이 나타난다. 다음은 *Much Ado*의 Q1과 F의 text들에서 서로 상응하는 단어들을 뽑은 것이다.

<i>Much Ado</i>	Q (막장의 구분이 안됨)		F (막의 구분만 있음)	
line	40	challenge	41	Challenge
	41	subscribde	41	subscrib'd
	100	thincke	101	thinke
	292	returnde	292	return'd
	412	Weele	412	Wee'll

이상의 예들은 metre나 행의 간격조정을 위해 철자들이 조정되지 않은 것이 거의²³⁾ 확실한 것들 중에서 뽑은 것이므로 F의 철자가 Q의 것보다 현대화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19세기까지는 새 Shakespeare edition이 나올 때마다 철자현대화가 진전을 거듭해 왔지만 어떤 일정한 이론적 정립과 원칙들에 따라 현대화한 예는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편

21) J.R. Brown, pp. 64-5.

22) Bowers, *Textual and Literary Criticism*, pp. 133-34.

23) '거의'란 말을 쓴 것은 F1의 철자현대화 경향이 식자공의 철자선호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자들이 무원칙적으로, 무책임하게, 충동적으로 현대화 했기 때문에 자체내에도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결과를 빚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대체 셰익스피어의 철자문제는 인쇄소의 관행사항으로서 존재했을 뿐 20세기 이전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W.J. Craig 가 1905년에 Oxford University Press 를 통해 한편으로 된 Shakespeare 전집을 Oxford Standard Authors Series 로 낼 때 물론 철자와 구두점을 현대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metre 상 필요할 때와 현대형태와 아주 다를 때는 옛 형태를 존속시켰으며, 구두점을 철저히 개정했다는 말만 서문에서 했을 뿐 그 나름의 어떤 체계나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다.

For the uncertain orthography of the old editions I have substituted the recognized orthography of the present day. But metrical considerations occasionally render the retention of the older spelling necessary, and I have deemed it desirable to adhere to the older forms of a few words which modern orthography has practically shaped anew. The punctuation has been thoroughly revised....²⁴⁾

다시 말하면, Craig 는 무수한 그의 전임자들과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원칙의 제시로서 자신의 철자현대화를 정당화시킬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본문·서지 학자들이 편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대화 원칙들을 세워보려는 시도들이 있게 되었으며, Wilson, McKerrow, Evans, Wells 등이 그 두드러진 예이다. Wilson 과 McKerrow 는 앞서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Evans 와 Wells 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1982년에 Harvard 대학 영문학교수직에서 은퇴한 G.B. Evans 는 1974년에 한편으로 된 Shakespeare edition 인 The Riverside Shakespeare 를 내었다. 그는 이것의 편집을 위해서 현대화 원칙들을 채택하여, 이것들을 서두에 붙인 'Shakespeare Text' 의 마지막 부분인 'VI. The Present Edition' (pp. 39-40)에서 밝혔다.

Evans 는 Bowers, 최근 작고한 C. Hinman 등과 더불어 미국의 저명한 서지·본문 학자로서 높은 학문의 권위를 갖고 있다. G.I. Duthie 는 일찌기 Evans 를 'one of the most judicious of American scholars'²⁵⁾로 평함으로써 그의 학자적 신중성 내지 진지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으며, Hinman 은 Evans 의 The Riverside Shakespeare 가 나오기 3년 전에 이미 이 edition 을 'certain to be a scholarly one'²⁶⁾이라고 평했던 것이다.

24) 'Preface',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ed W.J. Craig (London: O. U. P., 1957; 1st ed, 1905), pp. v-vi.

25) G.I. Duthie, 'Foreword To the 1963 Impression', *The Manuscript of Shakespeare's 'Hamlet' and the Problems of its Transmission* by J. Dover Wilson (C.U.P., 1963; 1st ed, 1934), i, pp. xviii-xix.

26) Charlton Hinman, 'Shakespearean Textual Studies: Seven More Years', *Shakespeare 1971* ed. C. Leech and J.M.R. Margeson (Vancouver, 1971), p. 44.

1974년에 드디어 출간된 *The Riverside Shakespeare*는 Hinman이 기대한 이상의 대단한 노작이었고, 부분현대화 혹은 semi-popular Shakespeare edition으로는 그 이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 물론 부분현대화가 불가피적으로 가져오는 반대중(semi-popular)판의 한계점과 단점을 *The Riverside Shakespeare*는 전부 제거할 수는 없었다. 바로 이 단점을 Wells는 최근에 비판하면서 전면현대화를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 우선 Evans 교수의 현대화원칙 내지 이론과 실재를 알아보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vans는 'Shakespeare's Text: VI. The Present Edition'의 둘째 단락에서 철자문제를, 셋째 단락에서 구두점을, 네째 단락에서 -ed와 -'d형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 세 단락의 내용을 하나씩 차례로 간추린 것이다.

Riverside edition은 본질적으로 현대철자본문이지만 다음의 두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철자형태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1) 'distinctive contemporary pronunciation'을 반영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일단의 철자형태들('a selection of Elizabethan spelling forms'). 예를 들면, 고유명사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철자형태들이다——*haberdepois*, *fift* 혹은 *sixt* (fifth 혹은 sixth), *wrack*(wreck), *Birnan*(Birnam), *Bullingbrook*(Bolingbroke), *Callice* (Calais), *Dolphin*(Dauphin), *Roan*(Rouen) 등.

(2) early printed text들에서 변형이 없는 철자형태들과 철자 그리고 오늘날 낯익은 단일단어(single word)들의 'possible variant pronunciations'를 암시하는 철자형태들——*bankrout*—*bankrupt*, *conster*—*construe*, *embassador*—*ambassador*, *fadom*—*fathom*, *incestious*—*incestuous*, *renowm*—*renown*, *vild*—*vile* 등.

둘째 범주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Evans는 G.L. Kittredge의 1936년 edition의 본을 따라서 copy-text에 나타나는 변형형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 copy-text의 변형형은 Shakespeare의 철자선호보다는 scribal 혹은 compositorial choice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역시 Shakespeare가 작품활동을 하던 종류의 언어적 분위기('the kind of linguistic climate')를 암시하기 때문에 copy-text의 변형형을 보존시킴으로써 전면규모의 현대화가 가져올 비역사적 그리고 무감각한 밀어버리기('unhistorical and sometimes insensitive levelling')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vans는 어느 한계 내에서 일부 원문의 'variety'와 'colour'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구두점에 대해서는 그것의 현대화는 semicolon과 full-stop이 너무 많아지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그는 말한 것이다. 사절판들에서는 구두점이 적게 사용되어 현대독자에게 가끔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copy-text의 구두점을 자유롭게 현대화한다면 그것이 운문이든 산문이든 행들의 움직임(movement)과 의미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 Evans는 copy-text의 구두점을 매우 보수적으로 다루었다.

Evans는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로 보이는 *Sir Thomas More* 중의 147행에서 'almost

non-existent' 일 정도로 구두점이 가벼운 것이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를 인쇄원고로 하여 출판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사절판 본문들의 구두점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그는 Quarto text 들의 가벼운 구두점들이 셰익스피어 자신의 구두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믿고 그의 edition 의 바탕으로 삼은 copy-text 의 구두점을 가능한 한 반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에는 semicolon 이나 full-stop 을 쓸 곳에 comma 를 썼고, 그 결과 운문의 흐름이 자유로워졌고, 문장들과 문장요소들이 관련된 'immediacy' 가 생겼다는 것이다. 즉 그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original printing' 속에 오독이나 애매성의 위험이 있을 때는 구두점을 언제나 조정하였고, 의미의 변화를 초래할 변경은 'Textual Notes' 난에서 다시 취급했다.

끝으로, Evans 는 syllabic 인 -ed 와 non-syllabic 인 -'d 의 문제를 언급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시인들은 운문을 쓸 때 -ed(syllabic)와 -'d(non-syllabic)을 구분했다면서, 이 구분을 verse passages 에서는 존속시켰고, copy-text 에서 벗어날 때는 'Textual Notes' 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산문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들이, 때로는 행의 간격조정때문인 경우가 있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된 듯하여 Evans 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d 로 통일하였다. (1) 구어에서 -ed 형이 흔히 사용된 듯이 보일 때, (2) Don Armado 혹은 Fluellen 과 같은 몇몇 성격들의 대사들에서처럼 등장인물을 과장적인 speaker 혹은 'outlandish' speaker 로 제시하고 있을 때 -ed 형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상과 같은 Evans 의 부분적 철자현대화에 대해서 Stanley Wells 는 1979년에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 을 내고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Wells 의 출발점은 현대화된 edition 은 셰익스피어 단어들이 그 당시 이렇게 발음되었을 것이라는 소위 가정적인 발음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early text 들의 철자들이 셰익스피어의 것인지, 그의 필생들과 식자공들의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대독자에게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Wells 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IV

Wells 의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알아보기 전에 그의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 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더듬어 보는 것이 순서이다. 이 배경은, 간단히 말하면, Oxford 와 Cambridge, 혹은 Cambridge 와 Oxford 의 양 대학출판사의 경쟁으로 이루어졌다.

Cambridge 대학출판사는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앞서 언급한 Clark 와 Wright 의 9권으로 된 Cambridge Shakespeare(1863~66)와 한 권으로 된 이른바 Globe Shakespeare(1864) 등의 결정판적인 Shakespeare edition 을 내어 Shakespeare에 관한 한 Oxford 대학출판사를 압도했다. 50여년 후인 1919년에 Cambridge 대학출판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Dover

Wilson과 Arthur Quiller-Couch를 편집자로 정하고 'one play per volume' Shakespeare edition에 착수하여 1921년에 *The Tempest*를 내니 그것이 The New(Cambridge) Shakespeare의 첫권이 된 것이다. 이것은 1930년에 이르러 13권의 간행을 보게 되었다.

1905년에야 비로소 Craig의 one-volume edition인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Oxford Standard Authors Series)를 낼 수 있었던 Oxford 대학출판사는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궁리 끝에 Oxford는 Cambridge의 modernized edition에 대항하기는 너무 늦고 벽찮음인지 old-spelling edition으로 이목을 끌기로 하였다. 편집자 선택에서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적이었다. 왜냐 하면 20세기 초에 *The Works of Thomas Nashe* (1904~10)를 다섯 권으로 편집하여 early author들의 편집에 있어서 수준과 본을 세워 명성을 떨친 바 있는 서지학자 R.B. McKerrow가 Oxford출판사의 야심적인 Old-Spelling Critical Edition의 편집자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McKerrow는 Nashe 다음의 과업으로, 아니 필생의 과업으로, Old-Spelling Shakespeare Edition을 의중에 품어오던 터라 다망함과 건강의 쇠약함을 무릅쓰고 제의를 거절하지 못했다. 1920년대를 전후하여 McKerrow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의 하나였다. 1908년부터 Sidgwick and Jackson 출판사 일을 맡고 있는 그는 처음에는 joint managing director였으나 1917년부터는 단독 director가 되어 있었다. 1912년부터는 *The Bibliographical Society*의 총무로, 1934년에서 1937년까지는 그 기관지인 *The Library*의 편집을 담당했다. 한편 1925년에는 오늘날에도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의 하나인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를 창간하여 1940년 사망시까지 편집의 일까지 담당했다.

자연 McKerrow의 Shakespeare 편집일은 지치부진이었다. 초조한 그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1938년까지는 9개 작품으로 된 두 권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끝내 그것마저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건강의 악화로 가망이 점차 사라지는 듯하자 그는 그의 Shakespeare edition의 서론으로 내려던 편집방법 혹은 방침을 설명한 글을 *Prolegomena for the Oxford Shakespeare: A Study in Editorial Method*라 제하여 우선 1939년에 세상에 내놓았다. 결국 건강의 악화로 그는 그 다음 해인 1940년 초에 여망을 저버리고 운명하였고, 따라서 온 세계의 셰익스피어 학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Oxford의 Old-Spelling Shakespeare는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 과업은 당시 신예의 셰익스피어 학도였고 *Prolegomena*의 출간 3년 전부터 McKerrow의 Shakespeare 편집일을 도와왔던 Alice Walker에게 넘어갔다. *Prolegomena*의 서론은 Walker에 대한 McKerrow의 신임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Walker는 특히 'acute and logical mind'와 'excellent memory'의 소유자였다.

막중한 과업을 물려받은 Walker는 그 후 서지·본문학적 연구에 우선 몰두하여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1953), 'Some Editorial Principles with Special Reference to